

2012년 5월 16일

서울(인천) – 오사카(간사이)노선, 6월 23일부터 증편

- 서울(인천) - 오사카(간사이) 노선이 1일 3편으로 증편
- 당초 7월 1일 증편 예정이었으나 6월 23일로 변경

피치항공 주식회사(이하 Peach, 대표이사 CEO : 이노우에 신이치, 본사 :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)는 현재 1일 1편으로 운항되고 있는 서울(인천) – 오사카(간사이) 노선이 6월 23일부터 1일 3편으로 증편 운항된다고 밝혔다.

이번 증편은 사용기재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, 6월 23일부터 보유기수는 현재의 3대에서 4대로 늘어나게 된다. 당초 서울(인천) – 오사카(간사이) 노선의 증편은 7월 1일 예정이었으나 6월 23일로 앞당겨졌다.

Peach는 서울(인천) – 오사카(간사이) 노선 증편과 더불어, 7월에는 오사카(간사이) – 홍콩, 9월 말에는 오사카(간사이) – 타이페이(타오위안) 노선의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며, 올해 하반기에는 오사카(간사이) – 오키나와(나하) 노선이 운항될 예정이다.

Peach는 '아시아의 하늘을 좀 더 가깝고 즐겁게!'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, 일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사로서 노선을 더욱 확대해, 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 확대에 힘쓰고자 한다.

[운항시간표]

서울(인천) – 오사카(간사이)

편명	서울 출발	오사카 도착	편명	오사카 출발	서울 도착
MM002	10:05	11:50	MM001	07:35	09:25
MM006	16:25	18:10	MM005	13:55	15:45
MM010	21:10	22:55	MM009	18:40	20:30

6월 23일부터 MM001, 002, 005, 006 편이 증편 운항됨.

피치항공 주식회사 소개

Peach는 간사이 국제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 첫 본격 LCC 로서, 2012년 3월에 오사카(간사이) – 후쿠오카, 삿포로(치토세), 나가사키 노선, 4월에 오사카(간사이) – 가고시마 노선, 5월에 서울(인천) – 오사카(간사이) 노선이 취항했습니다. 또한 7월 이후에는 오사카(간사이) – 홍콩, 타이페이, 오키나와(나하) 노선이 취항

예정입니다.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치 및 선택지를 제시해,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아시아 시장의 잠재 수요를 개척함으로써 아시아와 일본 경제 성장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하며 일본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 네트워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.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, 지금까지의 항공회사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저비용 체제를 실현해 365일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회사 홈페이지 : www.flypeach.com

공식 페이스북 : www.facebook.com/peach.aviation

YouTube 공식 채널 : www.youtube.com/user/PeachAviation